



농식품부·합천군·축산원 힘 모아 산란계 농가 폭염 대응

- 농식품부 시설현대화 추진·합천군 예방시설 지원·축산원 기술지도 협업
- 정책부터 농가 적용·현장 확인까지 이어진 폭염 대응 협업 사례
- 합천 설치 농가 “계사 고온 완화로 폐사 줄고 생산성 유지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합천군과 협력해 추진한 산란계 농가 폭염 대응 현장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3개 기관이 역할 체계를 구축해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축사 신축과 개보수, 생산설비와 방역시설 등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폭염과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합천군은 축산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올해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쿨링패드와 안개분무시설 등 농가 여건에 필요한 폭염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이번 현장 확인 대상 농가에도 쿨링패드 설치를 지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시설을 설치한 농가를 찾아 외부 온·습도와 계사 구조, 환기시설 가동 상황 등을 고려한 쿨링패드 활용 방법과 관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계사 내부 여러 지점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차이를 측정했다.

현장 측정 결과, 쿨링패드를 설치하지 않은 계사의 내부 온도는 36.9℃였으나 설치 계사는 32.3℃로 4.6℃ 낮았다*. 이번 결과는 농식품부와 지

자체의 시설 지원, 연구기관의 현장 기술지도가 농가의 폭염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준다.

*현장 확인 당시 측정값으로, 외부 기온·계사 구조·환기 상태·측정 위치·시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남 산골농장 이민희 대표는 “폭염이 이어질 때마다 계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가 어려워 닭의 폐사와 생산성 저하가 걱정됐다.”라며 “쿨링패드를 설치한 뒤에는 계사 내부 고온이 완화되면서 폐사가 줄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시설 지원과 함께 효과적인 활용 방법까지 안내받아 폭염에 한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재 계사 내부 환경을 고르게 유지하기 위한 ‘계사 내부 환경 균일성 평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형태와 농장 여건에 맞는 온·습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폭염 피해 예방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정책과 시설 지원, 현장 기술지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축산업 고온기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내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경운 (033-330-9510)
		담당자	연구사	임천익 (033-330-9552)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관	박현경 (063-238-7201)
				

□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내용

○ 농식품부(축산정책과):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 (목적) 축사와 축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

* 근거: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

- (지원내용) 축사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방역시설 등

○ 경남합천군(축산과):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 (목적)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축산재해 예방
- (지원내용)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쿨링패드, 안개분무시설 등)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고온기 대응 농가기술지도 추진

- (목적) 신규 설치한 폭염 대응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및 농가피해 완화
- (내용) 폭염 예방시설(쿨링패드 등)의 적정 활용방법 기술지도 및 계사 내부 온·습도 환경 균일성 평가
- (지원방식)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농가기술지도 및 컨설팅

□ 관련 사진



계사 온도측정



내부 쿨링패드



외부 쿨링패드